

영국영향

대일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77 2월호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며 인내로써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육신의 생활에도 윤택한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

(성경 / 에베소서 2 : 1 - 10)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며 내리시는 모든 복을 누려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상 아담은 유혹에 빠져 반역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여러 성도들이여! 이렇게 타락한 인생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켜 일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을 시발로 타락한 인생은 길으로는 발전하는 것같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썩는 냄새를 피우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인생

첫째,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세상 풍속을 따라 목적도 지조도 없이 변하는 풍속을 따라 타락한 생활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몸을 적당하게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이고 정당한 사람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고 적당한 활동을 위해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비활동적이며 비경제적인 옷의 세계적인 풍조는 성경의 목적을 위반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악마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악마를 따라 사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을 악독하게, 반역하게 유인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거스리면서도 가장 잘난 줄 아는 것이 악마를 따라 사는 자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째, 타락한 인생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남은 괴로와도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극도의 개인주의에 떨어져, 나라도 민족 양심도 팔아버리고 질서 없이 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은 화목을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며 필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두 번 지음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성도의 자세

첫째, 옷사람의 위치에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타락한 부모들은 아들딸들에

게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이며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격을 키워야 되는 것을 모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생은 아랫 사람의 육신을 키워주며, 지식도 인격도 키워주어야 합니다. 또 믿음을 키우며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옷사람이 행하는 축복의 일입니다.

둘째, 아랫 사람의 위치에서 옷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젊은이들은 옷사람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승과 하나님의 종들의 사랑과 지혜로운 교훈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교만하여 옷사람을 거역하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째, 주 안에서 거룩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조심합니다. 타락한 아랫사람은 옷사람에게 까닭 없이 반항하고 원망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아랫사람은 옷사람을 대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옷사람의 마음의 애로점과 고초를 알게되어 자연히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지음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니만큼 마땅히 아랫사람의 선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신자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천국시민 삼아 주시고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면 실수가 없고 원수가 손 못대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그의 은혜와 축복에 거하려면 책망 받을까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며 인내로써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육신의 생활에도 윤택한 복을 주시며 마음에 천국을 이뤄주십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선을 가꾸고 키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티옥교회가 된다.

2월의 행사

- 1~3일/유년부 겨울성경학교
- 6일/제직회·남전도회임원회·권사회임원회
- 7일/산업전도회월례회
- 13일/남전도회월례회·권사회월례회·여전도회임원회
·남전도회헌신예배
- 14~17일/대학부 동기수양회
- 20일/여전도회월례회·재정위원회·평신도선교사과총
예배
- 20~22일/대학부 새생활세미나
- 21일/교육위원회
- 21~23일/야고보서 성경공부
- 24일/평신도선교사 박용삼집사 서독에 파송
- 24~26일/중등부 동기수양회
- 27일/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산업전도회임원회·여
전도회헌신예배
- 28일~영아부 계절학교

2월호 차례

- <말씀> 성도의 삶의 태도/김창인 목사2
- <권두언> 자신을 이해하는 젊은이가 되자/주간4
- <이달의 글> 감사합니다5
- <특별기획연재 ①> 왜, 주일학교에 대해
생각하려는가/정은표 집사6
- <충현기도원을 건축하며>7
- <홍해지역르보> 꼭 이뤄질 확신을 안고
/최명옥8
- <해의선교소식>9
- <순교사화 ④> 손양원목사(하)/이정웅 전도사10
- <이단종교비판> 이단종교란 무엇인가
/윤형철 전도사11
- <도서정보>12
- <책소개> 회개에의 경종/안영자12
- <찬송가해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13
- <1200자 칼럼> 극기/고제원13
- <각기관의 1977년 주요사업계획>14
- <구역장노우트 ③> 신암지도의 지침 ⑤
/백성룡 목사15
- <구역소식>15
- <뉴우스>16
- <기자석·편집후기·표지설명>1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19

월간 증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악을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8시45분 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젊은이가 되자

델포이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머리를 들을 때에 맨 처음으로 눈에 띄는 글귀가 있는데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경구라고 한다.

세상에 자신을 몰라도 좋다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실증이 나고 풍연히 심통이 나는 경험도 자주 낄지 모른다. 육체적 변화에서 오는 고민도 있을 것이다. 여성은 아름다워지려고 애쓰고. 남성들은 능률하고 「해설」한 용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심정에서 고민이 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변화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젊은이들에게는 강하고 새로운 감정이 나타난다. 때로는 이 감정의 표현은 분노, 폭발치는 성미, 알면서도 부리는 화소같은 고집, 변덕 등은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감정의 변화에 대처할 줄 모르는 무경험에서 기인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한때는 책임감있는 성인과도 같이 행동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기 쉽다. 이것을 젊은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의 성향을 모르고 지나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다. 그러다가는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탈선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드디어는 영적 생활상태가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다. 그리고는 무엇이나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내지 회의적으로 나간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질문과 의심을 종교생활의 일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믿음이나 불능(不能)이 없다는 믿음 같은 것은 이미 못 믿을 것으로 제쳐 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성장된 신앙인과 원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훈련과 감독, 지도와 소속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항상 마찰의 고통과 불안정의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관용보다는 변덕과 격한 감정, 사랑의 제언보다는 비평적인 태도, 주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적 태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도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 등등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낼 수 없는 모든 특징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이해하여야 한다. 각자는 인류의 전체 가족의 일원으로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훈육과 사랑을 받고, 스승과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의하여 계몽과 격려를 받고,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살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주간>

감사합니다

<어느 성직자의 기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잠을 깨게 한

세수물, 냄새가 좋은 비누, 입안이 산뜻해지는 치약 등 감사합니다.

내 몸을 가리워 주는 옷, 그 색깔과 그 모양, 이 모두 감사합니다.

꼭꼭 배달되는 조간신문, 미소를 자아내는 만화, 연속되는 진지한 회합, 정의의 실천, 승리한 경기 등 감사합니다.

청소차와 청소부들, 그들의 고함소리

이른 아침에 잠을 깨우는 길거리의 소음들, 감사합니다.

내 일, 내 연장, 내 노력

내 손에 들려진 금속, 요란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

현장감독의 만족스런 표정, 완성된 제품을 운반하는 손수레, 모두 감사합니다.

내게 미소를 던져주고, 문을 열어준 친구들 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내가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산뜻한 길, 눈을 즐겁게 하는 소원도우, 물결같이 밀려다니는 자동차와 사람들, 주택가의 담 사이로 재빨리 사라져 가는 인파들, 그 모두에게 두루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음식, 조금 전에 내 목을 축여 준 시원한 음료수, 이런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고픈 데로 데려다 주는 오토바이,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 내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 지나는 길에 내게 미소하는 나무들, 모두 감사합니다.

길 저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퉁이 스케이트의 아이들, 넘어졌을 때의 저 유쾌한 표정, 모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는 아침인사, 내가 한 악수, 나에게 보이는 미소, 감사합니다.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어머니, 그 다정한 표정,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 감사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비와 눈을 막아주는 지붕, 방안을 비추는 전등, 노래를 들려주는 라디오, 이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뉴우스와 아나운서, 출연자와 음악가들, 내 책상 위에 놓인 꽃, 감사합니다.

밤의 고요, 빛나는 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과 은총, 감사합니다.

주여, 늘 내 곁에 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들어 주시고 나를 진지하게 대해 주시며

내가 드리는 감사를 손수 받아 하나님께 드려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주일학교에 대해 생각하려는가

—문제설정의 취지와 연재방향—

정 은 표 집사

<월간총원 간사>



<필자>

○……오늘날과 같은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89년전 일이다.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953년이……○
○……니가 올해로 24년째가 된다. 89년이라는 우리나라 주일학교……○
○……역사에 비해 24년이라는 우리교회 주일학교 역사가 결코 짧……○
○……은 것은 아니다. 24년전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처음 문을 열……○
○……때에는 불과 100명 내외이던 학생수가 지금 2,500여명이 되……○
○……었다. 교육대상 범위를 보아도 처음에는 주로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었는데 중·고·대·청 등으로 점차 확대……○
○……되어 현재는 몇대가 풍기는 영아로부터 70세가 넘는 할아버……○
○……지까지 모두가 주일학생이다. 이처럼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교육대상을 넓히면서 양적인 급팽창일변도를 달려왔다. 이걸……○
○……은 형태로 발전해 온 우리교회 주일학교에 대해 우리는 알……○
○……으로 10여회에 걸쳐 함께 생각해 보자. ……○

◇ 왜, 주일학교에 대해 생각하려는가?

주일학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모두 같다.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가 늘상 쓰는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실제목표를 설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말의 뜻이 충분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는 아직도 머리속의 생각 중에 있을 뿐 말과 글로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천국일꾼」이라는 말과 「키운다」는 말의 뜻을 실제적인 행동목표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원인 말이다. 생각컨대 짧게 요약된 「천국일꾼」과 「키운다」는 이 두마디 말 속에는 너무도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천국일꾼」이라는 말은 곧 「기독교 교육철학」 또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신학」이라는 말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10여회에 걸쳐 계속 생각해보려는 문제의 초점은 이 「천국일꾼」이라는 비가획적에 맞추기에는 너무도 초심스럽게 누군가 속히 「천국일꾼론」을 내어놓기를 기대하며 「키운다」는 뜻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한다.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인 땅을 잘 고르고 기대하는 결과의 씨를 바로 심는 일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씨를 심은 후에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되 쉬지 말고 돌아보며 기다려야 된다.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이렇게 심고 키우는 일을 24년동안 계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한 이렇게 키워진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께 바쳐질 때 죄로 인해 기갈을 당한 못 심형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 어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우선 뿌려야 할 씨앗(교과내용·교재)이 너무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은 것이 없이 심성하며 잡것이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겠다. 그리고 씨를 뿌릴 팔(학생)은 씨가 잘 자랄수 있도록 깊게 뒤엎어 잘 고 잘 골라졌는지도 알아보고, 일꾼(교사)은 건강하며 씨를 심는 방법(교수법·생활지도)이 익숙한지도 확인해 보아야겠다. 뿐만이 아니라 일꾼이 사용할 도구를(주교행정·조직·재정·계획)이 잘 손질되어 있고 충분한지 알아보는 일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먼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면을 제시하여 척도(尺度)로 삼고 다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채택 있는 현실을 재어보려고 한다. 그 후에 각분야의 실무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지금보다 우리교회 주일학교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되논해 보려고 한다.

◇ 무엇을 기대하는가?

최소한 우리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보강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고 버리거나 개선해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이같은 단계를 거친 후에야 마로소 우리는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또한 이 세대가 갈구하며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이상이 아닌 계획으로서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씀

1977년 새해를 맞아 충현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던 기도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섭리가 계셔서 금번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충현동산)의 약 2,500평 임야에다 건축하게 되어 지난해 12월 6일 기도원 건축대지조성공사 및 기공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올해 1월 20일에는 그 대지 위에 총공사비 약 8천만원 예산으로 예배당·기숙사·식당·목사관·수위실·변소 등 총건평 786평의 건축허가가 정식 교부되어 올해 여름 안으로 준공할 것을 목표로 목하 소요되는 자재구입 등 공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면서 성스럽고, 아담하고, 우아한 기도원이 하루 속히 세워지기를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모두가 한뜻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더함이 없으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7년 2월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건축위원장	김	기	정

■ 실무담당자의 말 ■

현재 기도원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배입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날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늦어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장마 전까지는 완공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주일학교 각부를 비롯한 각 지회의 올 여름 수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 여름부터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항상 우리의 모든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장소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다.

특히 예배당을 위시한 여러 부속건물의 크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주었다.

약 45,000명이 되는 충현동산의 임야중 2,500평을 정지하여 총건평 786평 규모로 짓게 되는데 건물은 모두 7동(棟)이라고 한다. 각 건물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예배당

아담하면서도 현대식 감각을 살린 건평 230평의 2층건물로서 1층은 대소(大小) 모임을 위한 집회실로 2층은 예배실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 기숙사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를 각각 한채씩 지어 침식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각 기숙사는 2층 건물로서 각각 150평씩이며 도합 300평이 된다. 모두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식당

총건평 106평으로서 현재 교회 내의 식당처럼 자리가 비좁아 서서 식사를 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해야 하는 고통을 덜고 편히 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사관

27평의 아담한 2층집으로 언제까지 눌러있고 싶고 또 교역자들이 휴식하며 말씀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진지한 개인신앙상담실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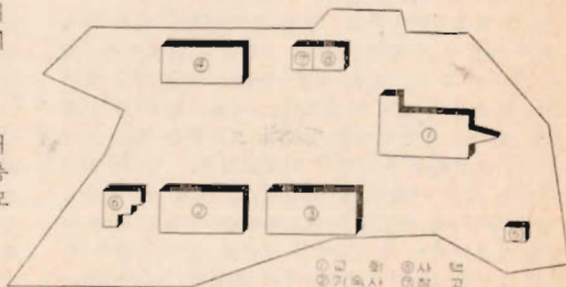
□ 세척실과 변소

188평의 넓직한 세척실과 변소, 물도 깨끗이 가다듬을 수 있으니 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 수위실

15평의 건물인데 친절한 수위 아저씨가 항상 여러분을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오갈적에는 수고하시라는 인사를 잊지 말도록 부탁한다.

〈기도원 배치도〉



꼭 이루어질 확신을 안고

.....◇ 본교회 해외복음선교회 정책에 따라 중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선교의 꿈은 일시 ◇.....
◇ 중단된 듯 싶으나, 현지 파송되었던 이연호 선교사는 그 집념을 버리지 못한채 ◇.....
◇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문제의 홍콩지역은 어떤 곳 ◇.....
◇ 인가? 그곳에 취업차 나갔던 청년회원 최명욱씨의 현지르보를 몇회에 걸쳐 ◇.....
◇ 재하러 한다. <편집자> ◇.....

최 명 욱

<청년부 회원>

외국인일지라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며, 어쩌면 구려가는 성경·찬송으로 인하여 공황에서 되돌아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더딘 사막과 열풍 그리고 울림으로 다스려지는 보수와 회교 중주국. 그러타, 만민을 사랑하사 복 주시기를 지극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이땅에 이미 한가지 물질로 크게 축복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의 대속자이신 중요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그 한가지 물질을 발판으로 세계를 향하여 달려진 문을 열어 놓으셨다.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공사를 맡고 달려들어들 내려 뜨겁게 투쟁하는데,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사업을 맡아서 감당할 민족은 누구일까?

기원 1976년 1월, 영하의 섭식한 서울의 추위를 떨치고 달은 수도 리야드(Riyadh)의 달력은 1396년 무하람(muhamaram)을 가리키고 영상 10°C의 쾌적한 기온이었다. 해(年)와 달(月)과 날(日)이 일원화 되어 가는 세계와는 달리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섰해지고, 금요일을 휴일로 지켜서 생활환경은 물론 날짜까지 새로운 적응을 요구했다. 갑작스런 오일달러(oil dollar)로 10여년 사이에 현대물결문명은 홍수처럼 밀려왔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는 여성이 전신을 검은 베일로 두르고 다녀야 하는 저극히 폐쇄된 사회. 성류층에서는 이미 유럽의 문화가 흡수되어 충분한 교육도 받고 비밀리에 자신들의 사교생활을 즐기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에서는 무지(無知)에 2세기 이전의 원시적인 습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절저한 회교정치국가로, 경전 코오란은 국법의 구실을 하며 대중의 유일한 집회로 1일 5회 기도시간「살라」가 있다. 그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예배 장소인 모스크에 모여 기도드리고 길을가던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성지메카를 향하여 포복하는 절을 하며 꿇어앉아 코오란을 비이면서 기도드린다. 알라(「하나님」이라는 뜻의 아랍어)를 유일신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부인하고 아브라함을 선주로 해서 마호메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의 한 분으로 오인하고, 이 나라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후손이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서자로 주장한다.

코오란이 아니면 칼을 뱉하라고 말할 만큼 이교도에 게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나, 이미 세계 각지에서 많은 민족이 들어와 있고 또 약10년 전 고(故) 파이잘 왕의 주치의로 있던 인도인이 왕의 청허를 받아 하나의 친목 단체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양성화된 모임에 참여하는 국민은 강대국에 속하는 영국·미국인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여한 지 몇개월 되지 않아 숫자도 증대되고 언어장벽(영어로 예배가 진행되었음)으로 되돌아서는 교인이 있음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출애굽하여 우리 말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갈망하여 대담하게도 목자 없는 양의 우리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지난해 5월 21일 창립예배를 가졌다.

이 나라의 환경은 어떠한가? 사실 물이 귀하여 갈증을 느끼기도 하나 오락시설이 없고 술이 없으며,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이 까다로운 나라이니 외국인 일지라도 사는 낙이 없는 제약받는 것은 많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한국의 생명들이 목마르게 물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한 몰랐으며...” 이 찬송가가 이 땅에 와서 크게 은혜가 되었다고 하던 한 성도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진정한 고백일 것이다.

한 여름철이면 섭씨 50도까지 기온이 상승하여 자동차 뒤편이 뜨거워 잠을 수 없다. 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 그늘을 만들어 주는 작은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1,2월은 제법 서늘하고 구름이 끼면 으시시 추워오며 3,4월 우기(雨季)에는 거의 격일로 비가 내려 하수도시설이 안된 이곳의 거리는 보통 발목 위에 까지 물에 잠긴다. 이러한 홍수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다 증발해버리고 안개처럼 시야를 무우영계 흐리는 모래 바람을 일으킨다. 이들이 쓰고 다니는 머릿수건(고드라 또는 위막이라고 함)은 이런 바람에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쓰고 뜨거운 태양열에서 채액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교유의 상인 긴 옷을 입고 여성이 12세 이상이면 검은 베일을 쓰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일곱곳으로 늘어난 선교지

- ◇.....하나님의 은혜로 2월 24일 서독에 박용삼 집사(유치부 부감·남전도회 지육부장).....◇
 ◇.....를·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이제 일곱 분의 선교사(세 사람은.....◇
 ◇.....평신도)를 해외에 보내고 있다. 금년 들어 어떠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선.....◇
 ◇.....교지에서 들어온 소식을 중심으로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인도네시아

- 1월 11일 동부 깔리만탄(보르네오), 비첸회사에 취업중인 한국인(120명) 전도를 위하여 성경·찬송 등 10.5kg 발송하였음.
- 1월 18일 불루복 섬 소재 인도네시아 법무성 소속 종신 형무소를 방문하여 집회를 가졌는데, 회교도 한 가정이 주님을 새로 믿기로 작정하였음.
- 교회 전도 및 신자 교육을 위하여 새찬송가 30권과 「진리로 산 사람들」「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불가능은 없다」 등등 평신도를 위한 서적들을 구입해 주기 바람.

홍콩

1. 새해를 맞이하여 제직회 조직, 구역 조직, 부인전도회 조직, 주일학교 개편 등을 새로이 하였음.
- 12월말에 9명의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1월 16일에는 2명의 지식 여성이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함.
- 홍콩한인교회 교인들의 훈련을 위해 대외적인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군대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 조국에 대한 바른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됨.

서독

1. 활동

- 가. 김영한 박사(전에 본교회 출석) 모시고 신년에 배를 은혜 중에 드림.
 나. 본교회 성가대와 함께 Rorhback, Mannheim 등지에 있는 7개 병원을 방문하고, 찬양과 함께 복음을 증거함.
 다. Adelshofen에 있는 성경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Otto Riecker 박사와 면담, 우리 중현교회와 유대관계를 재확인함.
 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성경연구반 외 두 곳을 방문하고 한국교회 전반을 소개하였음.

마. 본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 후 천교회 시간을 가져 새로 나오신 분, 생일 맞이하신 분, 경사 당한 분들을 축하함.

2. 계획과 청원

- 가. 본교회 성가대를 성가선교단으로 조직해서 전독일을 순회 선교할 계획이며 유럽지역도 순회할 꿈이 있음.
 나. 국·영·독어로 기록된 예쁜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보내 주십시오.
 다. 한글로 된 신앙잡지, 특히 이단에 관한 책자를 보내 주십시오. 하이델베르그에는 구원파·물몬교·통일교 등 이단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 특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 1월 2일 JOSE BONIFASIO 1550 중앙교회에서 21명의 한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기독교교리 공부 및 설교(매주일 10시)
- 교포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정착 문제 영주권 문제, 총기 수속 문제 등을 상담해 줌.
-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방전도 실시.
- 2월부터는 「아령선 사무소」를 시내 중심가에 설치하고 이사까지 하였음. 빈민가에서는 권총과 강도를 소유치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 강도와 무법자들에게 회생 당한 교포가 많음.
- 이주해 오는 불신자를 위해 성경·찬송이 많이 필요하니 당회장 목사님의 싸인(서명)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일시 귀국

일본 북해도에 파송되어 평신도선교 임무를 수행하던 유병세 집사가 일시 귀국하여 지난 14일에는 남전도회월례회에서 30분간 귀국보고회를 가졌다. 외과의사로서 병원전도가 주된 유병세선교사는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앞으로 성공적인 선교임무를 위해 계속 연구 중이다.

□ 이연호 선교사는 태국에 체류중

홍해지역에서 인도네시아로 후퇴했던 선교사 이연호 목사는 1월 18일 그곳을 떠나 싱가포르를 경유 현재 태국의 방콕에 체류중이며, 불원 이집트로 임지를 옮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랑의 원자탄—손양원 목사(하)

이 정 웅 전도사

(새선자부 부지도, 총신연구원 2년)

4. 원수를 사랑한 손목사

동인·동신이는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두 젊은 아들을 순교시킨 이는 안 재선이라는 학생 외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다. 손목사는 재선의 집을 조용히 찾아가 재선을 만났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재선이나?” 사랑의 얼굴로 대하면서 “너 안심하여라. 네 실수를 나는 벌써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도 벌써 용서하였을 줄 믿는다. 나는 너의 과거의 죄과를 기억도 안 할테니 이제부터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죽은 두 아들이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해 주어야 해. 그 아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만을 위해 담대하고 위대한 종이 되어 다오.”하니 재선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고개도 못 들고 있었다.

손목사는 이후에 재선을 손 재선이라고 성을 바꾸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 그를 부산 고려성경학원에 보내고 그를 키워 주의 종으로 쓰려고 기도했다. 목사는 손 재선을 자기의 친아들같이 돌보고 신앙으로 지도하였다.

손목사는 두 아들이 순교하여 천국에 간 것을 감사하며 원수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으니,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요 성자요 한국의 보배였던 것이다.

5. 6·25때 순교

손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감옥생활에서 6년간 지내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8·15해방과 함께 기쁨으로 출옥하였다.

손목사가 감옥에서 나오자, 애양원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하는 중 뜻하지 않는 6·25의 참극이 빚어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손목사는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는 애양원교회를 버려두고 어디로 피난하여 갈 수가 없었다. 여러 교우들은 손목사에게 와서 피난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꼴을 받아 먹는 사랑하는 어린 양떼를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손목사는 그곳에서 그대로 공산당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도 그는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하였다. 공산군들은 9월 13일 목사를 체포하여 여수 경찰서에 끌어들여 놓고서 갖은 매질과 욕설을 퍼붓고 고문을 주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리어 전도하다가, 9월 28일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하였다. 아들 동인·동신군을 주님 앞에 보내고 차기도 순교하니 부자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할렐

루야 찬송하며 영원히 빛나고 있으리라 믿어진다.

감사를 생활화한 손목사

손목사는 감사의 대표자이다. 그는 일찌기 그의 아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이 편지는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이다. 너무나 귀한 감사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동인이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같은 엄천에 고열도 심한데 제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쫓 피고 새가 노배하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출배(汗泉出盥)를 이루는 이같은 엄천(炎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금전옥루에서 산해진미(山海珍味)를 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뿐 아니라 수간두옥(數間斗屋) 속에 기한질고(飢寒疾苦) 중에서도 신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병고를 능히 극복할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음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음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와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음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에 영화가 된 까닭이웨다. 사탄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1943년 8월 18일 손 양원

손목사는 옥중에 갇혀 매어 있으면서 밖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이런 글을 보낼 수 있음은 그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참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손목사는 경건한 목회자와 나환자의 친구요 원수를 사랑한 사랑의 목사요 감사의 목사이다.

우리는 손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자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숭배하나 그는 가정 식구와 함께 경건하게 살다가 순교한 예가 없고 히스와 위크림을 성자라 하나 그들에게는 나환자의 친구요 원수를 사랑한 영예가 없다.

아— 손목사님! 한국교회가 낳은 유일의 성자이시요 세계교회 역사상 보지못한 성자이시다. 우리는 그의 위대한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자. (*)

이단종교란 무엇인가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 지도, 총신연구원 2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입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으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마 24:5-7)고 대답하심으로 새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다”(딤후 4:1)고 기록했고, 또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고 말씀하심으로 새 말세에 이단을 좇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좇는 이단의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놀라움을 표하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고후 11:14-15)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케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의 옷을 입은 무리로부터 우리 자신의 거룩한 믿음과 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안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과 이단발생의 이유와,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이단의 말 뜻

이단(異端: heresy)이란 정통(正統: orthodoxy)의 반대어이다. 정통이란 헬라어로 바른 의견「오르투 독사」란 뜻인데 반하여 이단이란 헬라어로 다른 의견「에테루 독사」란 뜻이다. 그러므로 이단이란 한 마디로 그리스도와 성경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단체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중심 교훈인 복음을 동한시켜거나 다르게 설명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다(요일 2:19).

2. 이단이 무엇인가?

바울 선생님은 고후 11:4-13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요, “제후의 역군”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다. 따라서 바울 선생님의 정의에 의해서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1) 이단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문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탄생,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승천·재림 등을 부정하거나,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초대교회 내에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가만히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한 사실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벧후 2:1, 요일 4:2-3, 요이 1:7). 그 후에도 노스틱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설명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파괴함으로써 325년 니케아회의에서 이단자로 정죄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람들이 “브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마 24:23)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특별히 요즈음와서 우리들에게 이단의 정체를 밝히 알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대신에 교주를 중심으로 대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를 집단의 교주를 메시아 재림 예수, 주님, 하나님의 둘째 아들 등으로 신격화하여 현대 교회사에 가짜 예수 전성시대를 기록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단들의 무리들이 합자부자하여 가짜 예수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영원히 저주받을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성경대로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이시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도서실은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된 책들을 도서관장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현대신학은 어디로/박아론/청암출판사
- 종교의 비교연구와 그 결론/변중호/신광판
- 이레서 믿는다/필·리틀/생명의말씀사
- 신학원론/변중호/대한기독교서회
- 교회와 국가/황성수/신앙에서
- 기독교윤리경해/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칼바르트는 정통신학자가 되었는데/코넬리우스·반틸/한국개혁주의신학회
- 기독교교육심리학/김득용/한국복음서문서연구회
- 세계속의 여명/엘리사우/생명의말씀사
- 여기에 구원이 있다/아즈월드·스미스/전국가정문서선교회
- 두 세계의 시민/성갑식/예장총회 교육부
- 신학과 신앙/홍반식/고신대 출판부
- 칼빈의 모습/파아커/대한기독교서회
- 다시 찾은 생명/전재동/한국복음서문서연구회
- 현대의 인간이해/페리트리베를/대한기독교서회
- 신구약 중간사/송락원/기독교문화사
-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프리트즈·리데나워/생명의말씀사
- 신앙생활의 지침/갈루페 C. 로빈슨 스테펜·F.원워드/대한기독교서회
- 교회부흥의 비결/폴·비·스미스/가정문서선교회
- 참목자상/리처드 백스타/생명의말씀사
- 그리스도의 제물을 대비하라/호미·던컨/생명의말씀사
- 완전에의 도전/마경일/대한기독교서회
- 진리와의 대화/김덕수/국동출판사
- 신앙의 기본원리/허벨 H. 홉스/침례회 출판사
- 소리지르는 돌들/오영세/고신대 출판부
-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아즈월드·J. 스미스/한문문화사
- 출애굽기 강해/조세광/크리스찬신문사 출판국
- 가정법률 상담실기/이태영/가정법률상담소

노명덕 박사 도서 기증

— 주석원서등 50만원어치 —

며칠 전, 본교회 노명덕 박사·부인 김인숙 집사가 귀중한 도서들을 미국에서 부쳐왔다. 영등포 성모병원원장인 노박사는 작고하신 장모 황은선 원사 추모기념으로, 신앙과 문화의 유산을 후손·후배들에게 계승·유지하려는 높은 뜻으로 세계적인 주요 문서인 렌스키 주석 1집, 풀티 주석 1집, 메류렌티 주석 1집, 키티빈신약사전 등 1,000달러(약 50만원)의 원서(原書)들을 황 원사 이름으로 보내온 것이다. 그런데 노박사는 재작년, 영아부 어머니들의 목요집회 강사로 수차 초빙된 바도 있다.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분·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배트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조셉 엘라인 저 이태응 역



생명의 말씀사 발행
4·6판 200면, 값 420원

회심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불에서 끌어내들이 신속하게 손을 쓰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 저자는 이 글을 눈물로 쓰고 통곡으로써 모든 이론을 파했으며 혈관을 비어 잉크로 사용하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이 글의 내용은 영혼구원을 위한 무한하고 채워질 줄 모르는 소욕을 갖게 해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기도와 전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 내용에서 영향을 받은 위대한 전도자들 중에는 핏필드나 스퍼전 같은 사람들을 손꼽을 수 있다. 저 유명한 스퍼전 목사도 아침에 잠이 깨어 제일 먼저 손에 든 책도 이것이었으며 1671년 처음 빛을 보게 된 후 수없이 재판(再版)되었으며 카라미 박사는 이 책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하여 영회토록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배포된 책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저자 엘라인의 생애는 “자기 시간을 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달라”고 한 주장대로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산 사람이었다.

이 책은 깊은 영적 영향력이 있어서 진정으로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와 나오긴 했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생각한다.

*안영자<월간중현 기자>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새 411; 개 470; 합 385)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드높은 위엄과 자비로운 은혜에 서린 '예수를 처음 만난 어린 소년의 마음, 오랜 번민 끝에 비로소 말씀하시는 참 뜻을 깨우친 젊은이의 영혼—그것은 진정한 삶의 주인께 대한 찬양이다.

주님께 대한 순결하고 참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찬송은 오랜동안 작자미상으로 전해져 있었고 다만 작곡자만 아도니람 겐슨 고을든 박사(Adoniram Judson Gordon)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다. 그러다가 몇몇 학자에 의해 윌리엄 랄프 피더스톤(William Ralph Featherstone)이라고 밝혀졌다. 그는 캐나다 사람으로 1846년 몬트리알에서 태어나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보냈다. 그의 출생년도나 작시년도 등에 대해선 여러가지 분명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어렸을 이 찬송은 20세도 못된 어린 소년이 쓴 것만은 사실이며 1858년 토론토에서 회개하고 처음 예수 믿은 후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구주이신 예수를 평생토록 사랑하겠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이다. 그의 영혼은 "예수를 보고 싶다,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사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죄인에게 평화를 말하고, 묵인 자를 놓아주고, 피로움 당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던 가르침을." 이러한 것들로 가득찬 것이다.

맥카탄(Mc Cuthan)은 말하기를 피더스톤이 찬송시를 지은 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그의 숙모(E. Featherstone)에게 보내었는데 그의 숙모는 매우 훌륭하다고 한 뒤 출판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는 1864년 처음으로 영국의 "런던 찬송가집"에 실렸다.

같은 해인 1864년 미국 마사추세츠주 자마이크 푸웨인이 있는 침례교 목사 아도니람 겐슨 고을든 박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곡을 신 나게 콧노래로 부르며 대관식 찬송가를 준비하느라고 "런던 찬송가집"을 열람하다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을 발견하고 그 내용이 훌륭하네 감탄했다. 그는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되었으며 조금 전에 자기도 모르게 부르던 콧노래가 바로 이 찬송에 어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기쁨으로 즉시 피아노에 가서 이 찬송시에 곡을 정리하여 기록해 갔던 것이다.

작곡자 고을든 박사는 마사추세츠주에 있는 비버리 팜즈(Beverly Farms)에 있는 유명한 고을든 신학교의 창설자며 대관식 찬송가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1700년 전

극기(克己)

고 제 원

해가 바뀌면 혼란을 금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들 다름대로 앞장 계획들을 세운 계획이 한달도 채 못되어 언제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현실인 듯하다. 인간의 계획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경험철학적 용어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그 표현이 진정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자기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한 꼬임에 주님의 계획과 자신을 잃고 인악의 파괴를 자초하였기에 그 간자로 인하여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작심삼일이라는 생활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하는 적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의 불순종 즉 개인이 자기자신을 이기지 못하였기에 못된 간에게 생의 커다란 숙제를 남겨준 것이 「극기」(克己)라는 과제인 듯하다. 자신을 이기고 절제하여 정복하면 계획뿐 아니라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음속의 선과 악, 믿음과 회개, 고난과 겸손, 실천과 갈등, 정욕과 절제, 물질과 영혼, 진리와 거짓의와 죄,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등의 상반된 분쟁에서 자신을 이기게 되면 승리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신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어려움과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줄 알고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고 정직한 태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와 성공에 고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자신을 바로 지키며 절제하는 데서 증거되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생존경쟁에서도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자신을 정복하여 도량있고 시야가 넓은 삶을 즐겨야 할 것이며 현실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알아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남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극기란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지식과 권세·명예의 유무와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갖가지 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극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체성 내지는 주관성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는 고귀한 인격이 형성되며 그 사람만이 가지는 넘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자신을 지켜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 모든 생활 속에서 극기(克己)를 갖고 도전하는 입장으로 보람찬 생을 살아가라.....

각기관의 1977년 주요사업계획

「우리교회 당회를 비롯한 산하 각 기관의 1977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는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같은 간단한 사업내용의 소개를 통해 서나마 각 기관의 특징과 활동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다. 일목요연하게 교회 전체의 사업계획표와 아울러 선문을 통해 각기관의 뜻을 독자여러분께 직접 전달하려는 처음 계획이 사정에 의해 부득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

*본 내용은 편집자가 임의로 사업내용을 선정한 것이며 여기에 밝힌 내용외에도 각 기관별로 지면관계상 소개되지 못한 사업도 있음을 부기해 둔다.

□ 제직회 서무부

▶주요사업<

- ① 교회수첩 발행 ② 제직 및 봉직자 일람표 발행

□ 구역권찰회

▶주요사업<

- ① 특별권찰회(1월 19일) ② 구역별 특별기도회(2월 중) ③ 구역별권찰회(2월 12일까지) ④ 노인심방협력(1월-2월) ⑤ 대심방(3월-6월, 9월-12월) ⑥ 각급 신앙문답예정자 보고(4월, 10월 성례회) ⑦ 경로회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5월 중) ⑧ 각종 여름행사를 위한 모금·시간봉사(7월-8월) ⑨ 구제대상자 명단제출(12월 3일까지) ⑩ 성탄구제헌금 모금(12월 17일까지) ⑪ 이웃구역 돌기

□ 교육위원회

▶목적< 성경과 개혁주의에 입각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활동을 지도·감독하는 데 있다.

▶주요사업<

- ① 학무지도(1월, 4월, 10월-종합감사) ② 실무자 교육(2월, 4월, 7월, 10월) ③ 교육위원교육(3월, 6월, 9월, 11월) ④ 1977년 주일학교 운영안 발행 ⑤ 계절학교 종합평가(3월, 9월) ⑥ 경로회(5월 14일) ⑦ 후기 교사위원회(10월 3일) ⑧ 교사총회(12월 26일)

□ 전도위원회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복음전도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있게 수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행 1:6)

▶주요사업<

- ① 지방전도(지교회보조) ② 해외전도(선교회보조, 선교사파송, 지교회설립) ③ 교회내전도(부흥회, 안드레전도, 농어촌전도, 선교의달행사, 전도의달행사) ④ 특수전도(군중사병훈련, 사관학교전도, 방송전도, 문서전도, 학원전도)

□ 성경학원

▶주요사업<

- ① 단기수련회(1월) ② 부흥회(1월) ③ 성경통신공과(1월-12월) ④ 지도자양성부(1월-6월, 7월-12월)

- ⑤ 성경학원개강(3월-6월, 9월-12월) ⑥ 단기성경특강(2월, 9월) ⑦ 전도대특수훈련(2월) ⑧ 학습·세례 문답교육(3월, 10월) ⑨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6월) ⑩ 전도대훈련(7월) ⑪ 농어촌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7월) ⑫ 강사파송 농어촌평신도훈련(7월) ⑬ 해외이주자 교육(11월)

□ 월간총현

▶목적<

교회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한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성도의 신앙성장에 유익을 준다.

▶주요사업<

- ① 월간총현 발행(1월-12월) ② 교회연보 발행 ③ 편집자 교육 ④ 자료실 운영 ⑤ 사진전시회

□ 해외복음선교회

▶목적< 해외복음사업과 선교사 양성 및 선교정신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① 선교지(선교지별 별도계획) ② 제 3회 선교주일(1월 30일) ③ 선교부흥회 ④ 선교발표회 ⑤ 제 2회 웅변대회 ⑥ 선교활동보고 ⑦ 선교정보 조사·연구·답사 ⑧ 땅끝까지의 지도육성

□ 남전도회

▶목적< 대내외 복음전도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행 1:8)

▶주요사업<

- ① 헌신예배 ② 군인전도 ③ 방송전도 ④ 개척교회 설립 ⑤ 노방전도 ⑥ 무료진료 ⑦ 지교회방문 ⑧ 부흥회 ⑨ 회지 발행

□ 산업전도회

▶목적< 산업전도요원을 양성하여 각종 기업체의 복음전도사업과 산업전도교육부를 지원하며 최원간 복음적 기업운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① 직장교회전립 ② 직장순방예배 ③ 회보발행 ④ 세미나개최 ⑤ 산업지역순방 ⑥ 산업전도교육부 지원 ⑦ 여성 기업인 파악

◇ 주일학교——각부 주요사업계획 내용은 별책으로 발행되는「주일학교 운영안」을 참조할 것.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월 중 결혼)

- 이월선/목정구역—1월 25일, 부산에식장
- 이정윤/이북량장로, 박정희집사 딸—1월 29일, 충현교회당
- 최호근/최광성집사, 정삼례권사 딸—1월 29일 기독교대학관

위로드립니다(1월 중 별세)

- 박성호/필동①구역—3일
- 이영담/장충②구역—5일
- 손오현/역촌구역—6일
- 이돈수/문명애집사 시부—9일
- 박현정집사/전상국집사 부인—9일
- 김은하/사당구역—21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 지난 한해도 은혜가운데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내에도 평강을 주시사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교사님 내외분과 현재 그곳에서 떠나신 이연호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좋은 선교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 홍종만 목사님은 사모님과 세 자녀를 동반하시고 지난 9월 23일 선교지인 홍콩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가신 홍콩은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혼잡한 국제도시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기억하고 기도하십니다.
- 12월 20일 육효기 목사님이 서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에서 안정하여 복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 의과외사로 일본 북해도에 가서서 평신도선교사로 일하시는 유병세 집사님(일시 귀국중)과 사업차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평신도선교사로 일하시는 신동수 집사님이 선교임무를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 7번째로 해외선교 나가시는 평신도선교사 박용삼 집사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역장 노트⑬

신앙지도의 지침(4)

백 성 룡 목사
(구역생활회장)

4.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그리스도인의 공적생활이라면 가정생활은 신자의 사생활이다. 가정생활의 지도가 교회생활의 지도보다 어려운 점은 시종 윤리적인 면을 실제 문제에 부딪치면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그 원리에 있어서 통일성을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앞세울 때 가정생활의 지도가 사생활의 간섭이나 신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행복을 주며 진정으로 자유의 신장이 되기 때문에 지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 지도를 주저하며 등한히할 때에 개인과 교회에 미치는 신앙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하며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1)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

① 유사점 :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이 외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즉 의식주의 생활구조에서는 유사하다.

② 차이점 : 정신적인 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본래적이며 원형적(마 19:3-8)이지만 불신자들의 가정은 단순한 인습적인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 우위성 : 본래적이며 원형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원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준 가정생활은 신·불신을 넘어서서 인류의 공동 관심사로서 추구되어야 할 진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가정생활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하며 또 지도해야 한다. 이 원리는 불신자들에게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

(2) 가정의 시작(창 2:18-25)

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로만 찍지오신 하나님의 뜻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결혼의 원칙이다(말 2:15). 신앙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이 이 원칙을 벗어나 그릇된 행위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타락된 가정생활에서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마 19:고전 7:1).

그러므로 침을 두거나 남의 침이 될 수 없으며, 그밖의 이중적인 생활은 가정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가 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일로서 다 엄금되고 있다(엡 5:22-23).

(다음호에 계속)

서독에 평신도 선교사 파송

— 박용삼 집사를, 평신도로는 세번째 —



지난 2월 20일 주일 저녁예배는 박용삼 집사(사진)의 서독 평신도선교사 임명 및 파송예배로 드리었다. 평신도로는 일본의 유병세 집사,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집사에 이어 세번째이며 이미 파송된 네분 교역자를 합한다면 1971년 9월 인도네시아로 서만수 선교사가 최초 선교사로 파송된 이래 우리교회에서 일곱번째로 파송되는 것이다.

평신도선교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영아부 부장과 남전도회 지육부장으로 봉사해 온 박용삼 집사는 앞으로 서독에 있는 에펜겐성경학교에서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동성경학교 재단에 속한 신학교에 입학하여 앞으로 선교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되리라고 한다.

부인 오미자씨와 아들(유년부 출석)은 당분간 본국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미 파송된 여섯분의 선교사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는 물론 새로이 파송되는(2월 20일) 박용삼 집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도 앞으로 계속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해외복음선교회는 여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주일학교 운영안 발행

—교육위원회서, 12부종합 단행본으로—

교육위원회는 『1977학년도 중현교회 주일학교 운영안』을 발행하여 주교 각부 교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계획은 이제까지 각부별로 해마다 발행하여 오던 운영안을 주일학교 전체로 통합하여 단행본으로 발행함으로써 각개 교사로서 하여금 주일학교 전체의 방향을 이해케 하고 아울러 타부와의 사업계획, 행사일정, 행사장소 등에 있어 상호 이해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교 교사의 실무지침을 수록하여 교사의 실무에 참고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이게 될 1977년판을 4×6판크기의 양면 프린트로, 그 내용은 주일학교 각부의 교과과정표, 조직표, 사업계획서, 예산서, 교육위원회 회칙과 각분과 업무세칙, 주일학교 교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같은 것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1977년판은 체제와 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을 가감하여 앞으로 해마다 수정판을 내어 체제를 가다듬고 내용을 알차게 보충하여 주일학교 교사의 실무에 있어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도록 꾸며나갈 작정이라 한다.

특별사업 추진위 구성

—설교 녹음테이프 보급과

김목사 설교집 등 간행—

당회는 우리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국내의 복음전도사업의 확장과 효과적인 전도방법의 하나로 우리교회에서 매주일 실시되고 있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를 카세트 녹음테이프에 수록하여 국내외에 보급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로 목회 40주년을 맞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집과 성경강해집을 발간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후대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한 양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 당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당회 서기(송순일 장로), 제직회 서무부장(윤종순 장로), 전도위원회 위원장(최석주 장로), 재정위원장(윤종성 장로), 남전도회장(김기정 장로), 여전도회장(김봉재 권사) 및 교역자와 칠간중현 편집위원과 일반교인 가운데서 약간명씩 선임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또한 요청되고 있다.

전도위원회 규약 인준

—지난 1월 정기당회에서—

지난 1월 31일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중현교회 전도위원회의 규약이 인준되었다. 이번 당회에서 인준된 전도위원회 규약은 앞으로 우리교회의 국내외 전도활동에 대한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방법과 조직을 체계화시켜 성문화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구분을 직할사업·위촉사업·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활동 규정에 있어서 외지전도함에서는 선교신앙원리, 선교정책의 원리, 선교사후보자, 선교사, 해외 지교회 및 교회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내지전도함에서는 지교회설립, 자매교회, 특수전도활동, 총동원전도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단기 성경특강 실시

—성경학원서, 야고보서 내용으로—

평신도를 위한 단기 성경특강이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신성종목사를 강사로 유년부실에서 실시되었다. 신복사에 의해 강의된 성경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또한 오는 4월에 실시될 교회 성경암송대회의 지정 성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단기 성경특강은 성경학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신구사업중의 하나로 금년 계획에 의하면 오는 9월 로마서 특강이 한번 더 있다.

주일 낮 4부예배 실시키로

—오후 3시 30분, 3월 첫주일부터—

당회는 지난 1월 31일 현재 시차를 두어 3부로 드리던 주일 낮 예배를 오는 3월 6일부터는 4부로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우리교회 본당의 적정 수용능력이 800여명인데 비해 날로 증가하는 교인수의 영향으로 현재 2부예배와 3부예배의 경우 1,2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예배장소의 협소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이같은 조치는 1963년(주일 낮 예배 출석수 1,374명)부터 2부 예배를 처음 실시한 이래 1974년(주일 낮 예배 출석수 2,378명) 3부 예배를 실시하였고 올들어(주일 낮 예배 출석수 3,000여명) 4부 예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배 시작시각을 보면 1부예배—오전 7시, 2부예배—오전 10시 20분, 3부예배—오전 11시 50분, 4부예배—오후 3시 30분이 되어 비좁던 좌석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오후 시간에 본당에서 실시되어 오던 각 지회들의 각종 행사를 실시할 장소를 잃게 됨으로 다른 면으로 또다시 장소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으로 하루 속히 보다 넓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더욱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주교 각부 대심방 실시

—신학기 맞아 학생과 교사—

주교 각부는 빠른 부(部)는 지난 1월에 늦은 부는 3월에 각각 약 1개월에 걸쳐 학생과 교사에 대한 춘기대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이 학급편성이 됨으로써 학생과 교사간에 또 학생과 학생간에 보다 밀착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나아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을 파악함으로써 학생 신앙생활지도에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수년내에 이르러는 각부가 미리 작성된 조사서에 의해 교사가 심방시 개인생활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몇몇 부(部)에서는 대심방결과를 종합하여 집계·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같은 일은 앞으로 더욱 권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2.6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 일 낮 I	118	301	419	주 일	I	42,970		
	주 일 낮 II	391	951	1,342		II	217,000		
	주 일 낮 III	412	793	1,205		III	202,450		
	주 일 저녁	148	407	555		집회	2,748,095		
	주 일 새벽	131	341	472		조정	294,700		
주	새 신 자 I	38	35	73	신 아	일	28,000		
	영 아 II	24	48	72		조	83,000		
	유 치 년 부	41	43	84		축	13,500		
	유 초 년 부	47	88	135		산	50,000		
	유 초 년 부	133	122	255		수	39,100		
일	유 초 년 부	139	159	298	주 일	새 신 자	1,960		
	유 초 년 부	187	166	353		영 아	20,885		
	유 초 년 부	159	172	331		조	12,900		
	유 초 년 부	76	81	157		축	17,690		
	유 초 년 부	50	79	129		산	23,180		
학	유 초 년 부	26	269	295	학	일	28,075		
	유 초 년 부	23	58	81		조	73,430		
	유 초 년 부	6	40	46		축			
	유 초 년 부	2,149	4,153	6,302		산			
	유 초 년 부					수			
계					계				

□ 신금별 교인통계 □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524	2,287/3,521	1,283/2,381	273/211	231/336	500/594

토막소식

*당회는 당회실을 3명 정도 확장하기로 하였다.

*당회는 1월31일 운전기사 박동철(28세)을 채용하였다.

*당회는 공용빈 집사의 후원 장학신학생으로 이정웅 전도사(새신자부 부지도)를 추천하였다.

*동산관리위원회는 광주군 목현리 충현동산관리인으로 현지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전기시설도하기로 하였다.

*구역연락회는 오는 3월부터 6월 까지 춘기 대심방을 실시한다.

*성경학원은 197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중인데 개강은 오는 3월 7일 오후 6시30분이다.

*남전도회는 오는 3월 13일 회원 성경암송대회를 열며 또 2월중 지교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산업전도회는 지난 2월 7일 총회속회를 열어 19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다.

*새신자부(장년)는 3월 26일 오후 6시30분부터 새신자부실에서 교사자채연수회를 갖는다.

*영아부는 3월 24일 오전10시 영아부실에서 주기도문 외우기대회를 연다.

*유치부는 3월13일 오후 유치부실에서 사도신경외우기대회 연다.

*유년부는 3월 20일 반별 찬송가 바르부르기대회를 연다.

*초등부는 3월 13일 당회실에서 심방보고대회를 연다.

*중등부는 3월 20일 병원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등부 면회회는 3월 6일 교사 초청좌담회를 3월13일에는 목요 회장 친목회를 연다.

*대학부는 3월 20일에 조별 친목회를 갖는다.

*산업전도교육부는 3월 13일 새신자부실에서 조별 찬송가 경연대회를 열며 3월 27일에는 교사초청좌담회를 연다.

*청년부는 3월 13일 성일교회 배순조 목사를 강사로 헌신예배를 드린다.

*청년부는 3월 26일 청년부실을 중심으로 교회내 대청소를 한다.

*장년부는 학기말교사를 실시하고 시상한다.

*노년부는 3월 20일 반별 찬송가 경연대회를 연다.

기 자 석

◇그를 처음 본 것은 작년 겨울—사람들을 이상한 힘으로 조용히 만든 후 “이것은 아주 비싼 것이요, 때가 지나면 얻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이제 곧 내립니다.”하며 버스 속에서 외치던 소위 말하는 전도자이다—그 이후로 좀 이른 등교길에, 가끔 남영동 길목에서 그리고 어제 동대문 지하도 옆에서 똑같은 점점 중절모와 외투차림에 손에 한웅큼 [전도지]를 든 그 사람, 할아버지와 만났다.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끝나도 눈이 내려 쌓일 줄 모르는 서울 거리를 우리 동네 드나들 듯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의 그 열정. 이는 일상의 사치한 감정과 의식 속에서 머뭇거리거나, 한 주일을 비워 놓았던 방안의 책상면치처럼 마음의 티를 털 때, 그때 버스 안에서 스스로 달려나가 “나도 한 장 그 종이 주세요.”하던 소년의 심정을 가지게 해준 소중한 2월의 기록이다. 물이킬 수 없는 2개월이 갔다. 오는 날들도 늘 신선한 소망과 순수한 열정들을 만날 수 있는 날들이기를 기대하며.....<인숙>

○...「도서실」하면 「정숙」이라는 선입견이 들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를 피차 조성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각 도서실 주위는 조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게 되며 그렇게 되도록 누구나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교회에도 도서실이 있다는 것은 축현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으며 우리교회 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서실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 수 있으나 정숙한 분위기 조성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교회 도서실인지라 주일날에 많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발맞춰 주일이면 주위의 분위기가 정숙치 못하고 시끄러운 것이 특징이다. 불행하게도 도서실 사무실과 성경학원 사무실을 겸하고 있는터라 사무실에서 나는 잡담의 소음이 모처럼만에 주일 낮 도서실을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인 듯하다. 아무리 사무실이라 하지만 주위가 도서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차가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만이 옳지 않을까 한다.<제>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던 요즈음은, 주어진 일에 사명감보다는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며 임버릇처럼 추위를 핑계대기에 전리했던 어제. 그러나 질서가 움트는 오늘부터는..... 오늘은 언젠가 도서관에서 빌려 보았던 책을 잠시 생각해 본다.

○...그 책은 안타깝게도 오자투성이였는데 어느 독자일지는 알 수 없으나 청지기적(?)인 직분을 발휘하여 인쇄소에만 보내지면 완벽하게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정부호로 수정되어 있었다. 그 독자처럼 우리도 아니 우리 축현의 식구들은 잠시라도 멈추어 생각하는 데서 더욱더 축현지가 더욱 더 성장하기를 바래야 하겠고 아껴주며 사랑해야겠다.<지>

○...조그마한 차를 타던 날(?) 출판적으로 운전 기사님을 불렀다. 의아한 듯이 쳐다보는 기사님께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는 화살 받을 준비로 마음을 정돈했다. “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뜻밖 에 대답으로 다음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었다. 부끄러워 들릴 듯 말 듯한 차분한 그의 음성은 나를 더욱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워는 주일날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드렸다. 그의 무사고를 위하여,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 달라고..... 즐거운 표정으로 핸들을 잡던 기사님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변에는 전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후에 그들이 주 앞에 있을 때 혹시나 “나는 전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미숙>

편집하고 나서

*...못 이룬 중등의 선교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묵으로 남겨져 있다. 언젠가는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릴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최명옥씨가 귀국하여 그곳의 상황,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차분한 필체로 전해 줄 수 있음을 참으로 귀한 반성과 중도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 다. 그리고 주일학교 발전을 위한 기획연재로 정은표 집사가 「왜, 주일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려는가」가 시작된다. 이번 기획에 많은 성원 있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기도원이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다. 교육의 모든 제 문제가 교육환경(장소) 탓으로 돌려졌었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 다같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기도원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또한 급히부터 윤형철전도사가 이단종교 비판을 써 주게 된다. 말세에 스스로를 부장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매번마다 동일한 회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월간 축현의 발간은 매회마다 난항을 거듭하게 되어 죄송하지 않다. 언초에 다짐했던대로 최현을 다해 볼 작오다. 교우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이 아쉽다.<형수>

>>표지설명<<

오랜동안 기도로 열망하여 오던 기도원이 드디어 그 공사를 시작,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대성령리에서 시공에배를 드리고 이어 설치를 마치고 공사에 임하게 되었다. 하루속히 완공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원 조감도를 담았다.

월간「축현」2월호 통권 제38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송순일

주 간/정관일

편집국장/조선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축현교회

100-서울 중구 중무로 5가 5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2월 27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제 3회 선교주일 (1월 30일)을 맞아 현재 브라질 아마존 강유역 주재 김 성준 선교사가 선교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이어서 선교영화의 상영도 있었다.



▶ 금년도 주교 각부 계절학교 (겨울)가 고등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월 17~21일까지의 고등부 겨울수강회의 한장
면이다.



▶ 선교주일을 맞아 많은 교우들이 선교회에 가입, 어른 회
원만도 1천명을 넘었다. 사진은 입회원서와 작성헌금을 기
록하여 제출하는 모습.



▶ 유치부는 1월 24~26일 윤 형철 전도사를 모시고 「하
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래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는데 예정
보다 더 많이 참석하였다.



▶ 또한 이날, 세계 여섯 곳에서 온 선교보고 및 화보를 전
시하여 각곳의 선교활동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 유년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아래 1월 31일부터
4일간 겨울성경학교가 열렸는데, 한 교사의 가르침에 귀기
울이는 어린이들의 모습.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서로 사이좋게 해주세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왜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전쟁이 생기면 물건도 손해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싸우지 말고 평화한 세계가 되게 해 주세요. 다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 전영택 시음 「어린이기도본」에서 —

실로암
못가에서

